



우주에서 다져진 극강의 정밀도, CHRONOMASTER SPORT METEORITE

2025년 8월 26일 르 로클 - 시간과 함께 뛰는 우주의 파편. 제니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CHRONOMASTER Sport Meteorite는 가장 아이코닉한 모던 크로노그래프를 한층 탁월한 차원으로 끌어올려 워치메이킹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펼쳐 냅니다. 최첨단 크로노미터에 천체의 아름다움을 결합한 최신 CHRONOMASTER sport 모델은 이미 뛰어난 성능과 정확성으로 찬사받는 타임피스에 우주의 신비로운 매력을 더합니다.

2021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에서 “크로노그래프” 상을 수상한 Chronomaster Sport는 제니스의 독보적인 고진동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기술력을 대담하게 표현한 모델입니다. 0.1초 단위의 정밀함을 구현한 이 모델은 현대 워치메이킹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제, 실제 운석으로 제작된 다이얼을 통해 시간의 우주적 스케일을 시적인 감각으로 구현합니다.

수백만 년 전, 우주의 텅 빈 공허 속에서 여정을 시작한 운석 조각은 마침내 지구에 도착하여 르 로클의 제니스 공방에서 매혹적인 다이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주에서 녹은 철 성분이 서서히 식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독특한 기하학 구조인 비드만스태텐(Widmanstätten) 패턴은 정교한 수작업을 거쳐 드러나며,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지 않는 고유한 디자인의 그레이 컬러의 운석 다이얼을 완성합니다.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이 운석 다이얼 위에는 제니스의 시그니처인 삼색 카운터가 실버, 라이트 그레이, 앤트러사이트 컬러로 조화로운 대비를 이루며, 각 카운터에는 원형 아주르 마감이 섬세한 디테일을 더합니다. C1 슈퍼 루미노바 처리된 바톤 형태의 아워 마커와 핸즈가 어떤 조명 아래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선사하며, 4시 30분 방향의 은은한 날짜창이 디스플레이를 완성합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깃든 세련된 실루엣과 펌프 스타일 푸셔가 돋보이는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담긴 CHRONOMASTER Sport는 1969년에 출시된 전설적인 A386 모델의 DNA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10초 단위로 눈금이 표시된 블랙 세라믹 베젤은 탄탄한 내구성과 정밀한 가독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폴리싱 및 새틴 브러싱 처리된 표면은 스포티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더하며, 최대 10ATM의 방수 기능으로 일상 속에서 뛰어난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타임피스의 중심에서는 제니스의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의 최신 버전인 엘프리메로 3600 이 박동합니다. 5Hz(시간당 36,000 회)의 진동수와 실리콘 이스케이프 휠을 갖춘 이 칼리버는 크로노그래프 핸드가 10 초에 한 바퀴씩 회전하여 0.1 초 단위까지 정밀하게 경과 시간을 측정합니다. 또한 6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스톱 세컨즈 메커니즘이 뛰어난 신뢰성과 고도의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무브먼트는 블루 컬럼 휠과 수평 클러치, 그리고 제니스 스타가 장식된 오픈워크 로터와 같은 섬세한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CHRONOMASTER Sport METEORITE 는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된 링크와 더블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한 일체형 스틸 브레이슬릿과 함께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화로운 컬러의 클래스프를 갖춘 블랙 러버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되어 한층 다양한 활용성을 선사합니다.

한때 일본 독점 판매 제품으로 출시되었던 CHRONOMASTER Sport METEORITE 는 이제 제니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티크를 비롯한 전 세계 공식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워치메이킹의 심장, 제니스

1865 년 스위스 르 로클에 설립된 제니스는 개척 정신과 정밀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16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 및 제조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 지속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969 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성과 뛰어난 고진동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니스의 타임피스들은 혁신과 뛰어난 장인정신을 향한 매뉴팩처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념합니다. CHRONOMASTER 컬렉션은 고정밀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제니스의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강조하고, DEFY 컬렉션은 기술적 혁신과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PILOT 컬렉션은 모험을 함께할 특별한 동반자로서 제니스가 항공 분야에서 쌓아 온 풍부한 유산을 예찬합니다. 정밀성을 향한 한결같은 열정은 크로노미터 부문에서 기록한 2,333 회의 독보적인 수상 경력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오랜 시간 이어 온 제니스의 탁월한 헤리티지를 한층 강조합니다. 수상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칼리버 135 는 최신 기술 솔루션과 소재의 통합을 통해 현대적인 구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제니스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G.F.J 컬렉션에 칼리버 135 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국해협을 횡단한 루이 블레리오의 역사적인 비행에서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의 기록적인 성층권 자유낙하에 이르기까지, 제니스 시계는 역사를 통틀어 커다란 꿈을 꾸며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개척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처럼 대담한 정신은 제니스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활약하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제니스는 15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보여 온 탁월함, 혁신, 목표를 기념함과 동시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분야의 최전선에 서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1865 년부터 현재까지, 르 로클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제니스는 워치메이킹의 심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CHRONOMASTER SPORT

레퍼런스: 03.3120.3600/76.M3100

핵심 사항: 4시 30분에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0.1초 측정 및 표시가 가능한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세라믹 베젤의 0.1초 인디케이션, 60시간으로 늘어난 파워 리저브.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00

진동수: 시간당 36,000회(5Hz)

파워 리저브: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드,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0.1초 크로노그래프:

- 10초에 1회 회전하는 중앙 크로노그래프 핸드
- 6시 방향에 위치한 60분 카운터
- 3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마감: 새로운 별 모양 로터 및 새틴 마감.

가격: 16,900 스위스 프랑 / 18,300 유로 / 17,500 달러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블랙 세라믹 베젤

방수: 10ATM

케이스: 41mm / **두께:** 13.6 mm / **러그 간 길이:** 47mm

다이얼: 운석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폴딩 클래스프. 블랙 리버 스트랩 추가 제공.

